

곡성 문화

2015년 8월 28일 / 2호

<http://www.gs-culture.or.kr>

발행인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 빙신호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곡성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 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곡성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곡성문화원은 지역 여러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곡성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지가 된다.

곡성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곡성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곡성문화원은 문화 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 한다.



아름다운 내 고향! 곡성



저는 목사동면 동암리, 거기서 또 열 서너 가구가 따로 사는 관암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보성강을 나룻배로 건너서 석곡 5일장을 다녔습니다. 바로 그곳에 너무나 애뜻한 많은 추억이 서려 있어서 가끔 '고향의 봄' 노래를 혼자 읊조리다가 눈물짓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향의 산천과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다정한 벗들과 맺은 추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솔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극히 순수해지고 또 인간다워집니다. 지금은 신분이 국회의원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에 넘치는 대우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고상한 품을 잡고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연설도 하지만 저의 근본은 더없는 곡성 촌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다행이라 생각하며 또 너무 좋습니다.

세상적인 허울을 벗고, 껍질을 벗고, 고향이라는 거울 앞에 혼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정현. 너 말이야. 초콜릿 대신 강냉이 대를 빨아 먹으면서 부족한 당분을 섭취하고 자란 그 촌놈 맞지? 너랑 딱지를 치고 먹을 감고 까마귀 쫓아다니던 그 친

구들의 깔깔대던 그 웃음소리를 잊지 않았지? 요즘 서울의 거창한 호텔 식당에 드나든다고 고향 초가집 뒷마루 위 소쿠리에 담아 매달아 두고 먹었던 여름날 그 콩보리밥에 상추 된장 꼴맛을 잊어서는 안 돼. 알았지?”라고 혼자말로 해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깨북쟁이 친구들은 물론 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의 모임과 향우회,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잔치, 그리고 동네동네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정겨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치찌개 된장국을 먹으면서 고향의 맛과 멋을 나누며 즐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합동유세를 보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국회의원이 되었고, 소원했던 대로 고향의 발전을 더하는 일에 사랑방을 누비며 미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에 앞장선 우리 곡성문화원의 뜻 깊은 '곡성문화' 소식지를 받고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곡성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 '자연속의 가족마을! 아름다운 내 고향 곡성'을 창조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곡성 · 순천 국회의원 이정현

정약용 선생의 애민(愛民)과 절용(節用)의 실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도 벌써 2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0대 전남도의회 2기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과 도교육청의 살림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최근의 경기부진과 세수감소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한층 더 요구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필자가 군의원과 도의원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애민(愛民)과 절용(節用) 정신이 그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방 관리인 지방 목민관(牧民官, 수령)의 백성을 다스리는 '치민(治民)'에 관한 요령과 지나간 잘못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감계(鑑戒)'가 될 만한 마음가짐과 태도 등을 기술한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율기(律己)'편에 언급한 덕목들입니다. 애민(愛民)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노인을 섬기고 어린이를 잘 기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절용(節用)은 관아(官衙)의 살림을 내집 살림같이 여겨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돌아가신지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애민(愛民)을 위한 절용(節用)이며 절용(節用)에 뿌리를 두는 애민(愛民)이어야 한다'는 이 말은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서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혁파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는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개혁제도를 설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의 문화 복지증진과 전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통해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말이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나비효과는 중국 북경에 있는 작은 나비가 한 날개 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영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어 미국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즉 '나비효과'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가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올 때는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 곡성문화원에서 발행한 '곡성문화' 소식지가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효경칭찬생활문화운동'의 날개 짓이 곡성을 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커다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기원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 예산결산위원장 조상래

성공스토리

한국 사학의 대부 우암학원 조용기 박사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라

8·15 광복 전후 “가난한 농민을 계몽하고 가난으로 배움에 목말라하는 청소년을 교육해야한다”는 비전과 사명감에 불탄 20대 젊은이가 있었다. 교육자요 애국지사인 우암학원 설립자 조용기(사진, 89세) 박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당시를 회상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926년 우리고장 곡성군 옥과면에서 태어나 순천농림학교와 조선대학교, 미국 Pacific Western University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제강점기시대인 중학교 시절부터 죽음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랑방 야학을 시작하여 해방 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50년 12월,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무지와 가난 때문에 고아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나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해주겠노라!”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고, 뜻을 세우고, 전진을 부르짖으며 교육자로서 외길을 걸어왔다.

아버지의 교훈을 이어받아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그는 천막 두 개로 옥과농민고등학교를 설립한 이래 옥과고등학교와 전남과학대학교, 남부대학교에 이르기까지 90평생이 다하도록 농촌운동과 교육사업을 평생과업으로 삼고 우암학

원이라는 큰 숲을 일구며 살아왔다. 그 뜻을 이루었으니 우암은 “더없이 기쁘고 보람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달같이 깨어나 바위를 넘다

우암은 그의 저서 「달같이 깨어나 바위를 넘다」를 통해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는 일을 금광에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금광을 숨겨두셨다. 자신의 금광을 찾는 사람은 꿈을 이룰 것이나 남의 금광만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실패하고 만다. 누구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한 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다.

경천(敬天) 애민(愛人) 애국(愛國)의 삼애(三愛) 정신

“흠은 어머니이며 내 마음의 고향이요 나의 조국이다. 사람은 형제요 이웃이며 운명공동체다. 하나님은 진리요 구원이며 사랑이시다(길을 찾아서, 조용기, 2008).”

이러한 경천(敬天) 애민(愛人) 애국(愛國)의 삼애 정신을 바탕으로 고향땅 옥과 설산 기슭에 우암학원을 탄생시킨 천막교실은 나라와 시대를 고민하는 청년 조용기의 열정과 도전정신이고, 오늘의 우뚝 선 우암학원 상아탑은 금광을 찾아 꿈을 이룬 조용기 박사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생생한 인간승리의 휴먼드라마다. 고향땅 곡성에서 ‘한 톨의 밀알’이 되어 평생을 고향사람들과 애정을 나누며 살아오셨기에 ‘효경칭찬생활문화운동’이야 말로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하신 그 어른의 모습에서 “화향천리행(花香千里行) 인덕만년훈(人德萬年薰)의 교훈을 되새겨 본다.

글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함께해요! 행복누리 곡성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무지개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 역점사업으로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식)은 평소 곡성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곡성군 지자체(군수 유근기)와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의 적극적인 대응투자에 힘입어 지난해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곡

성군지자체는 2015년 4월 30일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 및 선포식」을 갖고 학교혁신으로 인재육성의 터전을 만드는 장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곡성군이 각각 2억 원씩, 매년 4억 원을 4년간, 총 16억 원이 곡성교육을 위해 지원된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무지개학교는 존중과 협력으로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가 함께해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근기 곡성군수도 “무지개학교 교육 지구에 16억을 공동 투자하는 지역단위 공동체사업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기식 곡성교육장은 “우리 곡성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선명한 빛으로 100세 시대 무지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곡성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2018년까지 지원하는 곡성에서의 무지개학교는

물·빛·공기가 무지개를 만들 듯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행복한 학생 만들기,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하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하기의 4대 과제를 설정하고 11개 사업, 25개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곡성교육지원청은 행복누리 곡성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으로 곡성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선명한 빛으로 100세 시대 무지개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은 꿈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가는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교사가 행복하고, 행복한 교사들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우게 되며, 가정에서 학부모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누리 곡성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곡성교육이 실현되고 안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곡성문화원 배숙영 실장



바른 인성과 탄탄한 학력, 남다른 재능을 다지는 교육활동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곡성중앙초등학교



곡성중앙초등학교 교장 김선홍

곡성중앙초등학교(교장 김선홍)는 1911년 6월 ‘곡성공립 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이래 102회, 총 13,6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배움의 요람이다.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 BEST(I 나부터, BASIC 기초부터, EASY 쉬운 것부터, SMALL 작은 것부터, TIME 지금부터) 운동의 전개로 바른 인성과 탄탄한 학력, 남다른 재능을 다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알뜰하게 실천하고 있다.

기본 생활이 바로 선 바탕 위에 사람됨의 교육

무엇보다 ‘심정의 효’가 살아 숨쉬는 ‘공수 인사법’ 지도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올바른 인사 습관을 기르고, ‘칭찬합시다! 칭찬이여가기 운동’을 펼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의절의 터 곡성’의 얼을 이어받아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예의 바른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지정 흡연 예방교육 선도학교(심화형) 운영으로 흡연 및 약물 오남용 확산 방지 등 비행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효경칭찬생활운동’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자율과 창의 속에 탄탄한 학력을 기르는 알찬 교육

다양한 수학 체험활동 중심 교수·학습 전개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학년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독서·토론 수업 전개와 ‘Fun-Fun 독서·토론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소통능력 신장, 공동체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문화 확산 등으로 알찬 실력을 엮어 가고 있어 독서·토론 수업 선도학교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꿈과 끼를 키워주는 신뢰 받는 교육

‘유소년 승마단’ 운영과 ‘공양미 삼백석’ 활동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여 나눔으로 꽃피는 모범적인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독서, 악기 연주, 타자 기능, 줄넘기 기능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인증·수여하는 ‘곡성중앙 어린이상제’, GMS 좋은 아침운동과 체·덕·지 조화의 삼품제 실시, 교육부 학교예술교육사업 뮤지컬 부 운영으로 예술적 창작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꿈을 키우고 끼를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곡성문화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곡성 사랑체험학습, 다양한 심정의 효 계승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효 인형극과 심정이 판소리 교실 등은 향토애호 정신을 고취하고 곡성인으로서 자긍심을 길러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모두의 참여와 노력 속에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높은 꿈·좋은 생각·바른 행동」의 교훈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좋은 수업으로 성장한다”는 김선홍 교장의 투철한 교육관 아래, 학생은 기초·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개성을 발휘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으로 충만하며,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로 발돋움 하고 있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곡성 인재들의 미래가 밝게 비추인다.

글 / 곡성문화원 회원

(前) 곡성중앙초등학교 교사 류재주

자랑스런 곡성중앙 어린이

- 어린이국회연구회 :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우수 질문서 선정 (국회사무총장)
- 주예진(5학년) : 소년한국일보 전국미술대회 (장려상, 소년한국일보 사장)
- 임선우(5학년) : 전남도지사기 시군대학 볼링대회 (1위, 전남도지사)
- 김나은(6학년) : 대한민국어린이 안전퀴즈대회(운영위원회장)
- 정예람(5학년) : 전남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발명인재상, 전남남도과학교육원장)



곡성의 효자·효부

팔순 부부의 지고지순(至高至純)한 효심과 사랑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고 도 부모 부양을 외면하는 ‘불효자식 방지법’을 막는 법안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불효자 말고 효자를 위한 지원법은 없을까?’

‘효’ 정신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귀감이 된 우리 곡성문화원 회원이자 현 삼기산악회 회장인 곡성군 삼기면 청계 2구 봉헌마을 김중(88세), 송복순(87세) 팔순 부부의 지고지순(至高至純)한 효심과 사랑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살아생전에 100세가 넘는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고 수발한 효행 수법이 널리 알려져 201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며느리인 송복순 할머니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송씨는 퇴행성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4급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40여 년간 극진히 봉양했다. 이웃마을에 사시는 친정어머니(당시 97세)가 운명하시기까지 2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본인도 고령의 나이에 시어머니를 보살피느라 힘들 것인데 아무튼 송씨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광은 문화원장께서 “두 분 어르신의 사랑과 효심을 널리 알려 후학들에게 효경칭찬생활 습관 형성에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자식으로서 우리 소임을 다했을 뿐인



송복순(87세) · 김중(88세) 부부

데...” 정중히 거절하다가 겸손하게 말씀을 열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잘 받드는 것은 자식의 도리요, 당연한 처사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숙연해졌다. 김중 어르신의 어머니는 2014년 향년 111세로 돌아가셨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할아버지도 100세 가까이 사셨고, 외숙(현 98세)도 창평 고서에서 사신다. 건강한 DNA 유전자를 이어받은 조상의 덕분이다.”고 하시면서 장수의 공을 조상님께 돌렸다.

“장수하신 모친의 일상 생활습관은 어떠하십니까?” “평소 숫자 맞추기 놀이를 즐겨하셨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양쪽 손가락 깍지를 힘주어 끼고 합장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명사십리를 비롯 옛 노래를 즐겨 부르고, 틈틈이 글도 읽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를 생각나는 대로 초롱초롱 들려주시던 다정한 어머니입니다.”

뭐 남다르게 효행하고 대단한 것 없어요.

“살아계셨을 때 모친께 실천했던 평범한 효성스러운 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부모 봉양, 양지봉양(良志奉養)한 것 말아야. 뭐 남다르게 효행하고 대단한 것 없어요. 모친께서 속이 안 좋다 하시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진하고 치료해 드리며 즉시 대처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확인하며 얘기 나누고, 저녁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니! 안녕히 잘 무셨습니까?’ 문안 인사드렸어요.”

우리는 평범한 거 같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일상에서 소홀히 하고 지나치기 일수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것을...

“그렇게 효도하며 잘 모셨지만 돌아가신 뒤에 후회되신 점은 없으십니까?”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것을... 후회한 적이 무척 많았어요. 이 같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거예요. 제삿날 형식적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 차려놓고 큰 절로 추모하면 무얼 해. 효행은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해. 그래야 자녀들도 본받아 그렇게 하게 되는 법이여.”

어르신의 말씀 속에서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자욕양이친부대(子慾良而親不待)”라는 말이 생생하게 귓전을 울렸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네. 흘러가면 쫓을 수 없는 것은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도 어버이사라(한시외전 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평소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라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실천이 아닐까?

김중 어르신은 6.25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한 무공수훈 유공자다. 삼기면장을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정년 후 초대 군의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에 존경과 덕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두 분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슬하에 4남 2녀를 훌륭하게 잘 길러 사업가로, 행정관료로 대성하게 해 준 아내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신(一身)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다. 장모님의 생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백내장 수술도 해드렸다고 한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본받아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틈틈이 부모님께 전화로 문안인사 드리고, 명절에는 40여명의 집안 식구 5대가 모이면 온 동네가 잔치분위기라고 한다. 팔순부부의 깊은 사랑과 효심이 자녀들에게도 산교육이 된 셈이다.

글 / 전남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심청골짜기나라학교 대표 강재구



향교(鄕校)는 고려 시대를 비롯하여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유학(儒學)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 기관으로서, 오늘날 국립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곳으로 향학(鄕學)으로도 불렸다. 유교의 문화와 예절이 우리 민족의 얼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윤리도덕이 말살된 현대사회에서도 향교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이다.

우리 곡성향교는 1570년(선조 3)에 창건되어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수많은 인재를 양성·배출한 곳이다. 1619년 방백(方伯) 이동직(李東稷)과 현감 이언철(李彦哲)이 중수하였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존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전사청·동재(東齋)·서재

상을 수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효행 실천사례를 공모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경칭찬생활문화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삶!

수유칠덕(水有七德)의 교훈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삶이 아닐까? 물처럼 살다가 물처럼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면 우리네 인생 더 바랄 것은 없을 것이다.

노자는 인간 수양의 근본을 물이 가진 7가지의 덕목, 수유칠덕(水有七德)에서 찾아야한다고 했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謙遜)의 덕,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

본 옥과향교의 창건 연대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고증할만한 문헌이나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조선조 태조 원년인 1392년에 당시 구 읍터가 있던 연화리 부근 황산(鳳山)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중등교육과 백성의 교화를 위하여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649년(인조27)에 다시 울정(栗亭)으로 이전하였다가



문신들에게 베풀어 준 기로연(耆老宴) 행사를 열고 있다. 이 잔치에는 각 마을 노인회장을 비롯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흥겨

운 장수벨트 곡성의 향기가 멀리 울려 퍼진다.

옥과 향교의 문화적 가치와 소망

1756년(영조32년) 현감(縣監) 송명흠(宋明欽) 선생이 현재의 위치에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3칸의 대성전(30평), 5칸의 명륜당(23평), 각 3칸의 동재(東齋, 10평)와 서재(西齋, 12평), 3칸의 육영제(育英齋), 3칸의 전사실(典祀室), 1칸의 장판고(藏版庫), 제기고, 고사,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 고직사(庫直舍)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4현(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매년 음력 2월과 팔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님을 비롯 선현들께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奉行)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하고 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 지정((1985.02.25) 되어 있으며, 소장전적으로 판본 30종 128책, 사본 10종 10책 등이 있다. 이 중 필사본인 『양몽재절목(養蒙齋節目)』·『향교전곡출입절목(鄕校錢穀出入節目)』 등은 우리 향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료로 간주된다.

우리 옥과향교에서는 매년 9월(음력 8월 초), 조선시대부터 70세 이상의 원로

강상부식 삼강오륜의 인성교육

옛 말에 인륜의 도와 얼을 바르게 세우는 「강상부식(綱常扶植)」이라는 말처럼 삼강오상(三綱五常)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바르게 알고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이 있어야 인륜(人倫)의 법도가 바로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옥과향교 유림들의 참여 봉사로 인근 옥과초등학교를 비롯 오산, 입면초등학교 어린이들이들에게 한자, 공수법 등 서당식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옥과 향교 나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문을 굳게 닫은 채 잠들어 있던 옥과향교를 학생 및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험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옥과향교 전교 김종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곡성향교

(西齋)·양사재·내삼문·교직사(校直舍)·고사(庫舍)등이 있다. 소장전적은 32종 58책으로 주로 경서의 낙필이 대부분이나, 필사본인 『향안(鄕案)』 등은 지방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전교를 중심으로 매년 봄·가을(2월, 8월) 초정일(初丁日)을 맞아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한 오성위(五聖位), 송조사현(宋朝四賢), 아국18현(我國十八賢), 도합 27현(賢)에 대한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奉行)하고, 매월 초하루(朔日)·보름(望日)날 오성위(五聖位)에 분향제례(焚香祭禮)하고 있다.

매년 기로연(耆老宴)을 비롯 문화유적지 답사, 단군전 어천절(3.15) 개천절(10.3)과 서원 및 사우(祠宇)의 제향봉행(祭享奉行), 장수상을 비롯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효행

혜(智慧)의 덕,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包容)의 덕,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融通)의 덕, 바위도 뚫는 끈기와 인내(忍耐)의 덕,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勇氣)의 덕,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大義)의 덕이다.

이처럼 우리고장 곡성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인심이 후덕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 수유칠덕(水有七德)의 교훈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끝으로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소외되어 왔던 곡성향교가 앞으로 여가문화 보급으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창출하여 전통과 문화가 다시 살아 숨 쉬는 곡성향교가 되기를 바란다.

곡성향교 전교 윤남열

곡성의 역사와 인물

29세의 순절 '월파 유팽로 장군'



세월의 파도에 흠뻑 떠밀려 420여 년 전의 여정(旅情)이 머문 곳, '유팽로 장군'의 고향을 찾아 곡성군 옥과면 소재지에서 옥과전을 따라 북쪽으로 남원시 대강면과 접경지인 옥과 합강리로 향했다. 눈과 귀 열여 길을 열고 이동하는 동안 KBS 역사스페셜(2012. 6. 14 방영)에 『호남을 지켜 조선을 구하라,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 유팽로』라는 타이틀로 조명되었던 활약상을 얘기하다 보니 금새 탐방지에 당도했다. 덩다 못해 뜨거운 8월의 폭염을 감내하는 마을 표석이 손짓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색 바랜 병풍벽화가 숙연하게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유팽로 장군'은 우리고장 이곳에서 1554년(명종 19년)에 출생하여, 6세 때 효행의 자작시를 지어 신동이라 하였다는 시비(詩碑), 그리고 연혁(沿革)·비·벽화·사당 등을 꼼꼼히 사진으로 스캔했다.

장군은 16세 때인 1579년(선조

12년)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된 후 1589년(선조21) 26세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九品)에 올랐으나, 1590년 부친이 돌아가시자 고향에 돌아와 시묘(侍墓)살이를 하였다.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일 전에 성균관 학유(學諭: 縱九品)에 임명되었다. 임진년 4월 13일 왜군에게 부산 동래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공주에서 전갈(傳囑)받고, 장군은 낙향(落鄉)하여 그해 4월 20일 의병의 기치를 올려 의병장으로 순창에서 500여 명을 모아 기병하였다.

장군은 의기(義氣)를 들어 의병을 훈련시키고 양대박, 안영 등과 같이 1592년 5월 29일 담양의 주성관에서 고경명(당시 60세)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휘하의 종사(從事)가 되어 전라지역 의병장들과의 연대를 통해 임란 최대 규모인 6천 대군의 호남연합 의병을 출범시켰다. 이때, 고바야카와 왜군이 전주를 공략하고자 금산에 집결하여 진을 치자 호남연합의병은 적을 맞아 1592년 7월 9일 싸우게 된 것이 1차 금산성 전투다. 장군은 금산성의 치열한 혈전(血

戰)에 패하여 적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고경명 의병대장이 적진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말을 돌려 적을 맞아 싸웠으나 고경명과 월파장군은 7월 10일 순절하고 말았다.

이로써 그의 29세의 짧은 생애를 마친 장군은 의병활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조선 중기 학자 안방준은 '호남의병록'에서 "임진왜란의 회복은 전라도 보존이고, 전라도 보존은 전라도 의병의 봉기이다"고 평가 하였다.

열녀를 기린 정열각(旌烈閣)

이렇듯 장군은 전라도에서 고경명·양대박과 함께 호남의 삼장의(三倡義)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순절한 월파장군의 부인 원주김씨는 3년 상을 지성으로 치루고 나서야 장군을 뒤따라 애석하게 지결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장군을 대사간에 추증 하고 삼강문(三江門)을 세워 신하를 보내 제(祭)를 지냈다. 그 후 인조 3년(1625)에 장군의 단소(壇所) 앞에 원주 김씨 부인의 열행을 기리는 정열각(도문화재 25호)을 세웠다.



따라서 장군의 충절이 결국은 국토 수복의 근거지인 호남을 지켰을 뿐 아니라 조선을 지켜냈던 호남연합의병의 값진 전란극복의 선구자로서 현재 광주 포충사, 충남 금산 종용당, 곡성 옥과(겸면)에 영귀서원, 옥산사, 도산사에 배향되고, 그 호국심의 발로 또한 의절의 터 곡성에서 유구히 포옹(抱擁)할 것이다.

이로운 '말 무덤' 의미

마을 뒤 사당을 둘러서 비지땀을 앞세워 입면 송정리 내동마을 쪽 정자나무를 돌아 1Km 쯤 가다 보면 들판 가운데에 갈풀에 가린 의마총비(義馬塚碑)라 새긴 표석과 큰 무덤이 보인다. 일행은 '세월을 두고 무상함'을 어설피게 체득하며, 유래된 애달픈 의미를 간직

한 '오려마'의 설화를 파노라마처럼 스케치 했다.

'월파문집'(류충열: 월파 류팽로 장군 14세손, 블로그)에 따르면 '오려마(烏驪馬: 五里馬)'는 충청도, 공주시는 양산인 처사로부터 장군이 건네받았던 말.....'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월파장군의 수급(머리 부근)을 입에 물고 300리 밤길을 주인의 생가로 달려와서, 장군의 부인 원주김씨의 치마폭에 바치고 아사(餓死)했다. 아쉽게도 생사를 초월한 가혹한 의절(儀節)을 기려 장사 지내고, 후세에 유림들이 "의마총(義馬塚)"이라 이름 한바, 비록 미물(微物)이지만 현재를 사는 일상에서 경이로운 인륜의 도(道)를 숨 쉬게 하는 감동마저 가슴에 머물게 한다.

곡성문화원 회원/편집인 빙신호

고향 산천

해와 달이 만나 소통하는 곳! 통명산



광주에서 기차마을 곡성통계이트를 지나 정면을 바라보면 들판쪽으로 의젓하게 버티고 서있는 장엄한 산이 통명산이다. 곡성의 진산은 동악산을 꼽지만 옥황상제가 기거한다는 통명전(창경궁에도 있음)을 뜻하는 통명산(通明山, 765m)은 곡성의 최고봉이다. 소백산맥의 끝자락인 통명산은 이름 그대로 '해와 달이 만나 소통하는 곳'이며, 지나가는 비도 산세의 아름다운 비경에 반해 머물러 있게 한다고 해서 통명숙우(通明宿雨)로 칭하는 곡성팔경 중의 하나이다.

곡성의 주산인 통명산은 곡성군의 중앙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부산인 곤명산의 산과가 바로 동쪽의 섬진강과 남쪽의 보성강을 가르고, 서쪽의 옥과천으로 둘러싸여 수많은 지류를 형성, 혈(穴)의 기운이 산줄기를 감싸고 도는 산지수려한 지형 구조를 이루어 천하대혈(大血)임을 주장하는 풍수지리 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신라말기에 풍수지리의 대가로 알려진 신승 도선국사(道詵國師)는 자신이 남긴 '옥룡자유산록(玉龍子游山錄)'의 곡성·옥과편에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갈 길이 바쁘기로 곡성(谷城)으로 건너가니/ 남향(南向)한 혈(穴) 하나가 미인단좌(美人端坐) 정녕(丁寧)하다 / 병권지위(兵權之威) 모두 있고 산림태도(山林態度) 없구나 / 통명산(通明山) 올라가니 장군대좌(將軍大坐)이 한 혈(穴)은 / 압록강상(鴨綠江相) 십리허(十里許)에 혈재고봉상상정(穴在高峰上上頂)에 / 왕자맥(王字脈) 삼십절(三十節)에 장상룡(將相龍)이 되었구나 / 유림재사(儒林才士) 간간(間間)나고 부귀(富貴) 장원(長遠)하리라

각종 '풍수 비결서'에 따르면 통명산은 대혈과 군소혈맥들을 거느리고 있어 호남 5대 혈(穴)의 하나라고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통명산의 혈(穴)을 이어 받은 여러 고을은 유서 깊은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재와



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오곡면의 덕양서원, 완계정사, 덕산사, 안향의 도동묘, 오강사, 덕계사 등이 있다. 또한 석곡면 방송리 산 운흥사의 옛터에는 주춧돌과 기와편만 남아있고, 마천목 장군의 묘소와 사당, 금계리 마을 통명사가 자리하고 있다.

통명산과 주부산 사이 진둔치는 임진왜란 때 의병이 진을 치고 왜적과 싸웠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통명산은 6.25 비극의 현장으로 조국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등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오곡면 승법리 곡성중앙초등학교 학교림(현 충의공원)에 1960년 3월 20일 곡성충의탑을 건립하여 1,219 영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통명산의 정상 헬기장 근처에서 끝맛 나는 점심을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면 멀리 무등산과 백야산 준령이 희미한 연무에 덮여 아른거리고, 지리산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와 명산의 자태를 읽을 수 있다. 북동쪽 아래로 곡성 시가지 전경과 풍요로운 들녘 풍경. 그리고 좌측으로 동악산의 바위봉 능선, 그 골짜기를 따라 호남고속도로가 길게 뻗어 올라 한 폭의 산수화보다 아름다운 웅기종기 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태안두견 봉두산과 지리산에서 뻗어내린 천마산, 모후산, 차일봉과 한동산, 국사봉이 정겹게 둘러싸여 우람한 통명산을 뽐내고 있다. 특히 이 일대의 벽모간, 노적골, 매봉(쫓대봉), 시양골, 장군봉 등 통명산 계곡은 예로부터 울창한 삼림과 심곡(深谷)에서 솟아 오른 맑고 깨끗한 1급수 물속에서 가재와 쟁그마리가 살고, 주민들의 자연 건강 식수로 이용되고 있어 아직도 때 묻지 않은 남도의 건강한 숲을 지니고 있다. 통명산은 곡성읍, 오곡, 삼기, 죽곡, 석곡 5개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석곡에서는 큰 통명산과 작은 통명

산 봉우리가 뚜렷하여 동악산의 형제봉처럼 불리고, 삼기면에서는 상봉, 중봉, 하봉 3개봉으로 되어 일명 통명산 삼형제라 부르고 있다. 통명산을 바라보고 오를 적마다 60여 년 전 이곳으로 소풍갔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진다. 아직도 옛날 금을 채취했던 금광굴과 참나무 숲을 구웠던 흔적이 아련하다. 6.25 직후 무자비하게 벌목을 일삼았던 아름드리 소나무와 참나무를 운반하던 군용 GMC트럭이 달리던 산골짜기 운흥사 도로의 자취가 자그맣게 열려있다. 삼기 통명산 길 입도와 이곳 석곡 방송길 운흥사 계곡 입도를 확장하여 확 뚫린 죽곡~오곡~곡성 간 2차선 산악 도로와 연결한다면 해와 달이 만나 소통하는 통명산의 이름처럼 귀농 귀촌인들이 찾아와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속의 가족마을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라 내다보인다.

철따라 즐거움이 달라지는 골짜기 통명산

피톤치드 풍부한 자연휴양림 솔숲에 건강 지압을 위한 맨발 숲길, 울창한 숲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하는 숲해설, 숲 유치원 등 학생들에게 좋은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할 가치가 풍부한 곳이라 여겨진다.

통명산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곡성 사람들은 삼기면의 삼명초와 통명초, 석곡 명강초, 오곡 명산초, 서로 통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통명 동우회 등 '통(通)과 명(明)자로 관련지어 이름을 짓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오순도순 정답게 배우고 익히며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산은 신앙이고 희망이고 신화다.' 사람들은 산을 경외하고 산은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품었던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되살리고 싶다.

곡성문화원 이사 / 석곡면노인회장 표락찬



고향애착

더불어 곡성사람들 할일도 많아졌다.



여행을 하다보면 고향에 대한 애착을 얻는다고 한다. 하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행 하면서 자기 집이나 고향처럼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향에서는 대인적 관계가 자연·혈연·학연 등으로 두텁게 어우러져 웬만한 일들은 서로의 체면과 이해 속에서 용인이 가능하지만 여행 중 타지에서는 소소한 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고향은 훈훈한 정이 있어서 좋고, 적당함이 통해서 좋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고향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 아닐까.....

내 고향 곡성! 내 영혼의 안식처이며 내가 태어나고 또 내가 묻혀야 할 내 고향 곡성이다. 내 고향 곡성은 특별하지도 더욱 풍요롭지도 않으면서 고집스럽게도 전형적인 농촌형 구조를 잘도 버티어 가고 있는 곳이다. 골짜기로 이루어졌다는 곡성의 이름에 걸맞게 산이 70%가 넘고 기타 강과 농토 생활근거지 등은 30%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대형스럽게 강이 두 개나 흘러 예로부터 농사짓는데 물 걱정은 없었다고 하니 바로 섬진강과 보성강 덕분이다.

섬진강! 섬진강하면 나 어릴적 소풍갔던 기억이 새록 새록하다. 왜냐면 우리 초등시절에는 소풍하면 섬진강 동산리 앞 모래밭, 명산저수지, 아니면 도림사가 전부였다. 당시만 해도 동산리 앞 모래밭은 수만평이나 되었으며 요즘 같은 한여름이면 열기의 아지랑이가 춤을 추는 듯 했고, 황금빛 모래밭에 반사된 햇빛은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모래밭 지금은 흔적 없다. 이미 오래전 우리들의 관심 소홀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사라진 것이다. 자연은 훼손은 쉽고 복구는 더디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움만이 가득할 뿐이다.

이러한 섬진강을 두고 풍수기에서는 서출동류하는 강은 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동서양의 학자들은 서출동류하는 강은 햇볕을 많이 받아 미네랄이 풍부하여 농업 용수로 적격이라고도 한다. 더욱 곡성은 비교적 개발로부터 소외된 탓에 산업화로 인한 환경은 오염되지 않아 청정의 일번지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물과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된 곡성의 메론 딸기 등 농산물이야말로 그 자체로 훌륭한 보양식이며, 곡성의 유일한 경쟁력일 수 있겠다. 특히 곡성에서 전국 소모량의 30%를 생산하는 토란에는 심혈관 계통과 위궤양에 좋다고 하는 갈락탄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곡성의 보고 섬진강 따라 의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기도 많다. 좌명공신 마천목 장군의 효심을 알 수 있는 도깨비살 이야기와 또한 고려말 강감찬 장군의 압록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모기를 쫓았던 설화, 그리고 섬진강이란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된 왜군을 쫓았던 두꺼비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구와 싸우다 장렬하게 순화한 유평로 장군과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장군의 충정어린 의기는 곡성이 바로 의절의 터라는 확신을 갖게한다.

섬진강기차마을! 2005년 3월 30일 섬진강기차마을에 증기기관차가 기적을 올렸다. 폐선 될 처지에 있던 (구)전라선 선로를 곡성군에서 매입하여 섬진강천적군 총관을 짓고 1004장미원을 가꾸고, 드림랜드 동물원 요술랜드와 갖가지 체험장을 만들어 지금은 명실공히 전남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에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50곳에 섬진강기차마을이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다. 이와 더불어 2015년 금년 장미축제 때는 유료 관광객 30만이 다녀가는 쾌거를 올린바 있다. 이는 관광지 곡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게하는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필자의 부족한 생각으로 곡성의 태동적 한계가 바로 자연이므로 앞으로 사소한 개발에도 그 개발이 곡성의 전체적 구도에 적합한지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더욱 곡성의 미래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발전방향이냐 먹거리를 생각해야 한다면 환경에 대한 파괴나 오염은 이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안된다. **더불어 곡성사람들 할일도 많아졌다.** 섬진강기차마을이 호남 제일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곡성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함은 물론 민관이 하나되어 아늑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바탕위에 관광지로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창조하여 방문자들의 기대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무성익한 음식물 판매와 숙박이 근성이다. 곡성이 아무리 좋은 관광지로서 전체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곡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진시민으로서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점차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고향사랑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니요, 거창한데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실천 없이 입으로만 하는 허망함이 아니라 내 고향의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이것이야말로 작지만 애향의 시작이요, 진정한 고향사랑 아닐까!

곡성문화원 회원 / 문화관광해설사 김신환

목사동 글비

안개도 색깔이 있다.



분명하다. 유명 문인들의 족적과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열망이 먼 후일 어떤 그림자를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도 18개의 글비는 돌담 사이에서 비바람과 햇살 아래 육신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 아래 가장 쓸쓸하고 외진 땅에서 갈 길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여행할 줄도 모른 채.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끝없이 존재하는 색채 없는 영혼, 그 흔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여행을 계속하리라.

문농일치 농부소설가 / 곡성문화원 회원 이재백(희구당)

단편소설집 : 목사동 느티나무

창작집 : 돌각담

제10회 박영준 문학상 수상

서라벌예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신 이재백(李在伯)선생님은 6천여 평에 달하는 배농사를 지으면서도 끊임없는 창작 열기를 불태우는 문인 중의 큰 어른이십니다. 동기생으로는 오찬식, 김문수, 김주영, 송상욱, 유현중, 천승제, 홍기삼, 김월준, 박이도, 이근배, 이이화 등이 있다.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 쓰는 문농일치를 실천하는 농부소설가이시며 이 시대에서 보기 드문 참선비 중의 한 분이십니다. 2006년에는 창작집<돌각담>이 문화관광부 우수문화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문단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모두 한결같이 입을 모아 존경하는 문인으로 초야에 은거하는 대유(大儒)십니다 글 / 多勿다물

대청소를 위해 모인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뒹영겨 작은 고샅길이 시끌벅적했다. 2008년 어느 봄날이었다. 볼품 사납게 엉클어진 돌담들을 치워내고 시멘트 블록 담을 쌓자는 의견을 가지각색이었다. “아름다운 마을” 공모 사업을 앞둔 시점이었다. 떡 나오기 전부터 김치 국 마시는 형국이였지만 그저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샅길 돌담은 그대로 보수하고 동구 밖 길을 돌담으로 쌓자는 그럴듯한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내 창작집 “돌각담”을 인용하여 새로운 마을 모습을 만들자는 속셈이었다. 게다가 유명 문인들의 육필을 받아 돌담 사이사이에 글 비를 세워보면 금상첨화일 거라는 의견까지 대두되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역사役事의 탄생은 마을 사람들, 농투성이들의 지혜였다. 장장 135m 돌담길에 18개의 유명 문인들의 육필문筆 비罫라니.....

달빛이 아름다움으로 번뜩이다간 허공으로 사라져 시야를 현혹 시키듯 조잡스런 형태지만 오래도록 그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흔적 지우기란 안개 색깔과 같은 이미지임이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장 안은련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은련)는 2000년도에 창립하여 현재 10개단체 1,5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 3월에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그동안 제5대~8대 회장으로는 이미숙 회장(주부교실)이 역임하였으며, 새로운 9대 회장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곡성군여성회장이신 안은련회장이 취임하였다. 여성대표로서 많은 분야에서 활동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으로 여성단체 발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에 소속된 곡성군 여성단체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안은련), 주부교실(회장 이미숙), 대한어머니회(회장 엄덕순), 한국부인회(회장 장용순), 여성의용소방대(회장 성기분), 새마을여성회(회장 강인순), 고향생각주부모임(회

장 한희숙), 농가주부모임(회장 신현옥), 생활개선회(회장 이해경), 한국자유총연맹(회장 이영남)으로 가입되어 있다.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김장 및 밑반찬 만들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관광지 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노력, 재난지역 복구를 포함한 군정 협력, 그리고 자매결연 시군과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등 많은 분야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교육과 매년 워크숍을 추진해 왔다.

또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살피며 여성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5.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혀 나갈

함께해요 희망곡성!!



것이며, 처음으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양성평등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많은 남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부부 행복과 소통" 강연과 식후행사까지 함께해요!! 희망 곡성만들기를 적극 실천했다.

글 / 곡성군청 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유효순

재경곡성군향우회 서울과 고향을 잇는 다리가 되어...



고향은 어머니 품속 같다. 고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향우회를 조직하여 곡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고향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향기로운 사람들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고향사람이 '재경곡성군향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한지 40여년이 되었다.

재경곡성군향우회(회장 박종식, 사무총장 한용현)는 모여서 먹고 마시는 위주의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출향한지 30~40여년이 지났지만 고향을 잊지 않고 항상 찾아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후배들을 챙기며, 남다른 애향심으로 물심양면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마인드는 요즘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다. 그러기에 애향심이 남다른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출향한 향우들이 고향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향우와 함께하는 'Home-Festival 송년의 밤'에는 어깨동무 한마당 친교를 넓히고, 면별 향우 모임, 감사패 공로패 수여, 보고 싶은 어른도 만나고 브라보와 환호성이 이어진다. 재경 곡성군 향우회와 고향 발전을 위해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이야기꽃으로 만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

산악회를 조직하여 산행 및 향우들의 나들이로 정이 더욱 쌓이고, 향우회원님들과 함께한 고향방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개통식에 시승하고, 심청이야기마을과 문화유적 답사로 곡성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내는 것'같이 '재경곡성군향우회'는 서울과 고향을 잇는 다리가 되어 고향을 일깨워 주고 향우간의 유대감을 결속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 먼 길 마다않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심청축제를 비롯 고향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축제에 전학 온 어린이들과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세대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향우들의 곡성 나들이는 심청쌀 판매를 비롯 기차마을 관광상품 홍보대사, 고향의 문화유적 답사, 동약산·통명산·설산 등산, 석곡돼지불고기 석쇠구이와 능이 닭곰탕, 섬진강변 은어·참게·쏘가리 매운탕 먹거리 그리고 기차마을 펜션과 한옥 민박 등 지역경제 도우미에 앞장서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고향 후배들 초청 서울나들이(이종열 전회장은 청와대 방문을 비롯 박물관, 국회의사당, 방송국, 서울대학교 견학 등으로 큰 꿈을 키워주고 미

래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친환경 고향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 서울광장 특산물 전시회, 관광객 유치 홍보대사 등 변함없이 고향사랑운동에 앞장서 고향 발전에 단단한 믿음의 끈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향우회 기금으로 마련한 관악센추리타워오피스텔은 매월 100만원의 향우회 기금으로 유지되어 명실상부한 자립의 기틀을 다지고 장학사업 등 희망을 건져 올리는 샘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고향 사랑에 취해 '한 떨기 꽃잎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경향우회에 소중한 고향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 오신 초기회장 양기영 / 2대 김재철 / 3대 전복기 / 4대 이상빈 / 5대 최영근 / 6대 신인수 / 7대 이종열 / 8대 강현숙 / 9대 조윤기 / 10대 박종식 회장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경 향우들은 "오늘도 '함께해요! 희망곡성'이라는 깃발아래 땀 흘려 일하면서 고향을 지키는 여러 어르신들과 지역민 여러분께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리는 곡성인! 누구나 애향심을 가져야 한다. 부족한 제가 재경곡성군 향우회의 회장이라는 대임을 맡고 있습니다. 굳은 애향심으로 향우회와 고향을 빛내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하는 현 박종식 회장을 비롯 재경곡성군향우회원 모두의 가슴에서 '곡향' 곡성의 향기가 물심 풍기고, 고향지킴이 우리 3만 여 군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아름다운 그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글 / 새마을문고 곡성군지부 회장 곡성문화원 회원 김재걸

경로위안잔치 곡성읍청년회



곡성읍청년회(28대 회장 서재중)는 8·15광복절을 맞아 기차마을 곡성로우즈홀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복달임 경로위안잔치를 베풀어 칭송이 자자하다. 30년째 이어 내려온 곡성청년회는 현재 청년회원 43명, 부인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면서 경로 호친 생활 실천에 모범이 되고 있다.

해마다 새해 첫날 동약산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여 삼인동 군부대 옆 훈련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떡국을 끓여 드려 건강을 축원하는 봉사활동을 필두로 점심시간에는 효사랑병원 노인 어르신들께 위문공연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1년을 시작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이웃 간에 서로 존경하고 상부상조하는 삼강오륜의 미풍양속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회원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매년 읍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내 고장 곡성의 골짜골짜를 2박 3일 간 야영하면서 도보로 순례하며 고장의 문화유적과 마을의 유래를 탐사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거리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곡성의 관문에 있는 애향동산 가꾸기에 힘쓰고 있어 찬사를 드린다.

글 / 곡성문화원 회원 양해만

심청골짜나라학교

전남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방형 대안학교
천연염색, 뉴 스포츠, 도예교실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레일바이크, 레프팅, 곡성섬진강 천문대, 승마체험 카누·수상스키·스키 교실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538
Tel. 061-363-4224

제15회 Gokseong Simcheong Festival

곡성심청축제

2015. 10. 8 ~ 11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 서산사 동종 · 연운당 고문서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우리 곡성군 곡성을 소재 서산사 동종과 석곡면 소재 연운당 고문서가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곡성군에 따르면 서산사 동종(西山寺 銅鐘)은 조선 후기(1730년)에 조성된 동종으로 총 높이가 69cm, 종신높이가 48cm, 입지름 43.7cm, 천판고 8cm, 천판지름 29.5cm, 용뉴높이 15cm 이다. 이 동종 조성과 관련된 연대, 장소, 장인이 기록돼 조선 후기 범종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높여 평가받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20호로 지정받았다. 또 범종은 두 마리의 용으로 표현된 종뉴와 입상화문대가 보이지 않는 점, 범종의 종신에는 합장한 보살입상이 장식돼 있고 범자문 등이 표현된 점, 종신에 명문을

새긴 특징이 있어 조선 후기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운당 고문서(漣雲堂 古文書)는 과거문서, 호적문서, 소지류, 일기류, 미암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 초록 등, 일괄 문서 177점이다. 이 고문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사와 제도사, 생활사 등을 이해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1호로 지정받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두 문화재의 원형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 곡성문화원 이옥희 간사



곡성군재향군인회, 65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곡성군재향군인회(회장 임채인)는 지난 7월 초, 곡성군 향군회관에서 제 65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향군인회 및 6.25 참전용사 50여명을 모시고 참전용사님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

임채인 회장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6.25 참전용사 여러분의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대국이 되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재향군인회는 참전용사들의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의지를 계승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원로 참전용사님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글 / 곡성군 재향군인회 양찬호 사무국장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선 옥과면 여성의용소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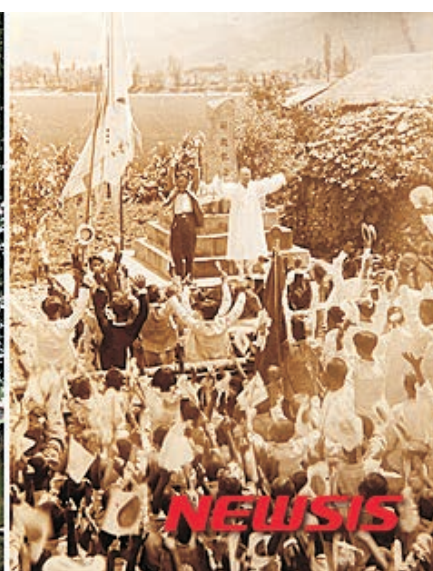


옥과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성기분)는 지난 6월, 오산면 운곡마을 내 거동이 불편한 주민 가정집을 찾아 비지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성희장과 대원들은 광주 인근 부대 군인들의 지원을 받아 방안에 쌓인 불필요한 가재도구와 옷을 치우고 도배, 장판 수리, 단수된 썬크대를 수리해 물을 공급해 주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훈증막 같은 방안을 정리하는데 팔을 걷어 붙였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주선한 군 복지실 관계자는 안타까운 제언에 흔쾌히 동의했다. "앞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이러한 가정들이 정상적으로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휴일을 가리지 않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 / 곡성의용소방대장 / 곡성문화원 회원 김판용

곡성 석곡 해방 1주년 기념비



1946년 8월 15일 곡성군 석곡면 석곡로52 (흥지리212-8)에서 '해방기념비' 제막식을 가진 뒤 김재봉씨(기념비 앞 왼쪽)와 주민들이 일제히 만세를 외치고 있다.

곡성문화원에 의해 재조명

광복 70주년을 앞둔 13일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서 해방 1주년을 기념하는 '해방기념비'가 곡성문화원의 협조로 빛을 드러냈다. 1m 높이의 비석은 1946년 8월 15일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면에는 '解放記念(해방기념)'이라는 네 글자, 뒷면에는 '檀紀四二七九年八月十五日(단기4279년8월15일)'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 / 사무국장 조준원)에 의하면 1945년 겨울, 당시 석곡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김재봉(1896~1950)씨를 비롯 홍봉희·백남생·김정수·안용식·이강술 씨 등 당시 마을 유지 10여 명의 건립 준비위를 구성했고, 석곡 지역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적극 호응하여 解放記念(해방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준공식날 석곡 주민들은 기념비 앞에서 연신 만세를 외치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다. 주민들의 우렁찬 만세소리에 일제 강점기 때 겪었던 고초와 설움이 한껏 실려 있었다. 당시 18세 청년이었던 김재봉씨의 큰 아들 김기상(88)씨는 아직도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글 / 뉴시스 류형근 기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내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